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전라북도교육청

1. (가), (나)에서 중시하는 물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윤리학의 구분

(가) -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통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 연구 예) 의무론, 공리주의 등

(나) -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한다는 이론 철학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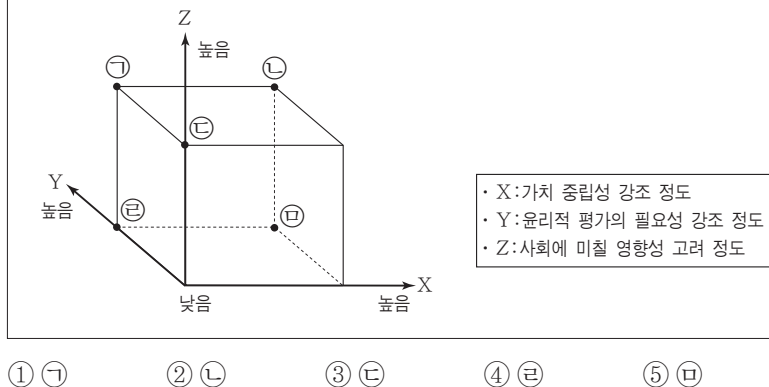
- ㄱ.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ㄷ.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ㄹ.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ㄱ | ㄴ | ② ㄴ | ㄹ |
| ③ ㄷ | ㄱ | ④ ㄷ | ㄹ |
| ⑤ ㄹ | ㄷ | | |

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과학 기술에 대한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여기 칼이 한 자루 놓여 있다고 가정하자. 이 칼은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도둑질을 할 때 사용하면 나쁜 도구가 된다. 즉, 칼 자체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학 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 그 자체일 뿐이다.

(나) 현대의 과학 기술은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 내지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충동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의 인간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와 복잡성으로 인해 과학 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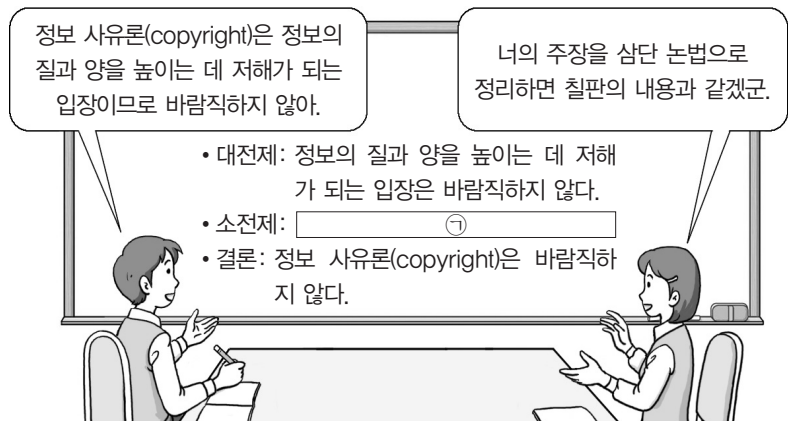


3.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정치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히 하여 항상 무지(無知)·무욕(無慾)하게 만든다.

- ①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禮)를 준수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억지로 일을 꾸미거나 도모함이 없는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학식을 쌓고 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만물의 관계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선악을 엄격히 분별하여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5.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칼럼

인체 실험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직접 실험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일을 말한다. 인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어떠한 효능을 나타낼지 동물 실험만으로는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만에 하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소수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인체 실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체 실험이 인격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 ① 실험 참여자의 존엄성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②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③ 대상자가 실험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보다 이익이 더 많음을 강조해야 한다.
- ⑤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감수한 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6.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은 셈이다. 그 마음을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그들을 위하여 원하는 바를 축적해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p> <p>을: 통치자와 정부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p>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right;">〈법례〉</p> <p>□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피치자를 위한 정치를 중시하는가?

ㄴ. A: 한 사람의 통치자가 만인 위에 군림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는가?

ㄷ. B: 정치적 권한과 참여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가?

ㄹ. C: 피치자의 지지와 선출에 근거하여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7.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체(政體)는 공화주의가 되어야 하며, 전쟁은 전 국민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화주의가 아닌 정체에서는 전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주저할 필요가 없는 사실에 속한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는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자로서 전쟁에 의하여 자신을 조금도 괴롭힐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비군이 폐지될 때까지는 문명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① 지혜로운 통치자가 전권을 행사해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 ②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인 세계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 ③ 국제 평화는 국가 간 군사적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 ④ 국제 질서는 평화로운 민주 정치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각국이 국방력 증대에 힘써야 한다.

8.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자기 집의 어른을 존경함으로써 남의 집 노인에게 미치고, 자기 집의 어린아이를 보호함으로써 남의 집 아이에게 미친다면, 천하를 자기 손바닥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p>
(나)	<p>㉠은/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이다. 시대와 이념에 따라 ㉠에 대한 내용이 다소 변화되기도 하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양한다는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p>

—〈보 기〉—

ㄱ.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다.

ㄴ. 인륜(人倫)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ㄷ. 옳음을 전제로 한 믿음을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권면(勸勉)하는 것이다.

ㄹ. 남이 나와 연기(緣起)되어 무수한 인연의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한 개인은 동정심도 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이타심이나 이해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개인으로서는 양심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으므로 자기를 도덕적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나 계급과 같은 사회 집단은 몹시 이기적이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감행한다.

- 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②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본다.
- ③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④ 절제, 양보, 관용의 덕목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 ⑤ 사회의 도덕성은 구조의 정당성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요구한다고 본다.

10. 다음 인터뷰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업이란 것이 노사 간의 이해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단인데,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금전적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용자와 노동자는 상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

- ① 기업은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전념해야 합니다.
- ②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 그 자체를 형벌로써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 ③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는 상호 대립적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 ④ 노동자들은 기업에 끼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성의껏 보상해야 합니다.
- ⑤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를 포용의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3년은 지나야만 부모의 품속을 벗어나서도 홀로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식은 적어도 3년 동안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의 3년 상이란 대개 온 세상의 공통적인 상례(喪禮)이다.

- ① 죽음은 필연적인 자연의 변화 현상에 해당하는가?
- ② 죽음에 대한 애도(哀悼)의 예(禮)는 당연한 것인가?
- ③ 도(道)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만이 타인의 죽음을 슬퍼하는가?
- ④ 죽음보다는 삶에서의 도덕적 실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12.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힌 바에 따라, 우리는 주님이 누구를 구제하려 하시고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를 그 영원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 모든 직업은 신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것이므로, 목사나 사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도 신이 허락한 거룩한 일이다.

—<보 기>—

- ㄱ. 모든 직업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다.
- ㄴ. 정당하게 모은 부(富)는 곧 신의 구원의 징표이다.
- ㄷ.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 ㄹ. 세속적 부(富)의 축적은 신의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가 한 명의 사회학자 또는 도덕주의자로 예술에 접근할 때 우리는 예술 작품의 본래적 가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것의 기원이나 목적에 대한 일체의 천착 없이 오로지 예술 작품 그 자체에만 주목해야 한다.

을: 예술의 평가, 즉 예술이 주는 마음의 평가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이해에 의존한다. 인생의 의의가 자기를 동물성에서 해방하는 데 있다면, 정신을 높여주고 육체를 낮추게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예술이 좋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① 예술은 윤리적 인격 형성에 기여해야 하는가?
- ② 참된 아름다움[美]은 선(善)과 무관한 것인가?
- ③ 예술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 ④ 도덕적 교훈의 성격을 지녀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 ⑤ 예술가는 작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14.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언어 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를 한 국가나 사회에 구현하기보다 하나의 동질한 문화에 융합하여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의 민족 집단이나 국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인 차원에서 인정해야 한다. 개인과 집단은 자유롭게 결사하여 법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

- ① (가)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동등하다고 본다.
- ② (가)는 다양한 문화가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
- ③ (나)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문화적 충돌을 초래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보다 사회 통합과 단일한 사회 질서 체제를 더 중시한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비주류 문화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15. 갑, 을, 병 사상가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편견들 중 가장 큰 것은 야수(野獸)들이 사유한다는 믿음이다. 동물들은 바퀴와 추만으로 구성된 시계처럼 자동 장치와 같다.

을: 윤리란 내가 나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바와 동일한 외경(畏敬)을 다른 모든 생애의 의지에 대해서도 보이고자 하는 의무감을 스스로 체험하는 데 있다.

병: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관심은 동등한 고려 가치가 있으며, 이들을 종(種)에 근거하여 하찮은 미물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을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는 것과 같다.

—<보 기>—

- ㄱ. 갑은 병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윤리적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다른 종류의 생명들이 갖는 가치를 구분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 ㄷ. 병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ㄹ. 병은 을과 달리 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는 승인하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거부되어야 한다. 행복이 크면 클수록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 또한 증대된다.

을: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모르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된다.

- ① 결과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과 분배의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외면하고 있다.
- ③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을 모르고 있다.
- ④ 결과의 정의로움이 과정과 절차를 정당화시키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사회 전체의 효용성만이 강조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거에는 예술이 예술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소수의 귀족 취향에 맞는 형태로만 창작되었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다양해진 소비 계층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예술의 질적·양적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을: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술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게 되면 작가 정신보다는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들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 ① 예술과 외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 ②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③ 현대에 중시되고 있는 예술의 기능은 무엇인가?
- ④ 예술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⑤ 도덕적 가치의 추구에 기여하는 예술만이 정당한가?

18. (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언론의 자유는 국민 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하다.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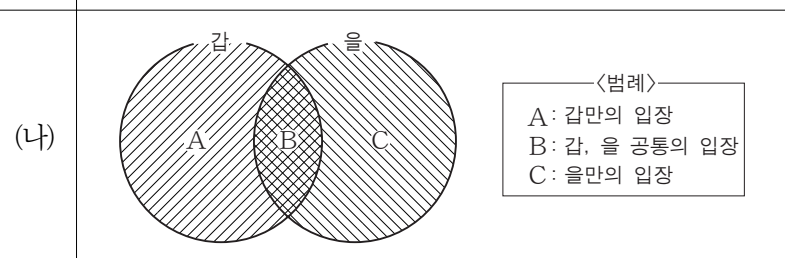
<문제 상황>

신문사 기자인 A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불법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 결과 제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 기사를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① 보도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될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②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치인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③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인은 신속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 ④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보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⑤ 진실된 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언론인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다는 그 자체만으로 가해져야 한다.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은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
을: 형벌의 경중은 처벌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의 이익 증진에 비례해야 한다. 즉, 그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에 대한 형벌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형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 기>

- ㄱ. A: 형벌에는 그 자체로 정의가 내재되어 있다.
ㄴ. A: 형벌의 형태와 정도는 응보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ㄷ. B: 범죄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도덕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ㄹ. C: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은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 문제: (가), (나) 사상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제석천의 궁전에 걸려 있는 그물 눈마다 달린 보석 구슬은 각기 혼자의 빛이 아니라 서로의 빛을 주고받아 반사함으로써 무궁무진한 상호 의존의 세계를 이루니, 하나를 들면 전체가 거기에 수렴하여 있는 것이다.
(나) 천지(天地)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각각의 사물에 법칙이 있게 하였는데, 백성들은 이 불변의 법칙을 파악하여 아름다운 덕(德)을 좋아한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면, (가)는 ㉠ 자연[天]을 만물의 근원인 도(道)의 도덕적 표현이라고 파악하며, ㉡ 모든 존재에는 고정 불변하는 고유의 실체가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나)는 ㉢ 하늘이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하였다고 간주하며, ㉣ 인간은 자연을 본받아 타인과 타존재에게 인(仁)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한편 ㉤ (가), (나) 모두 자연의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답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입(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오.